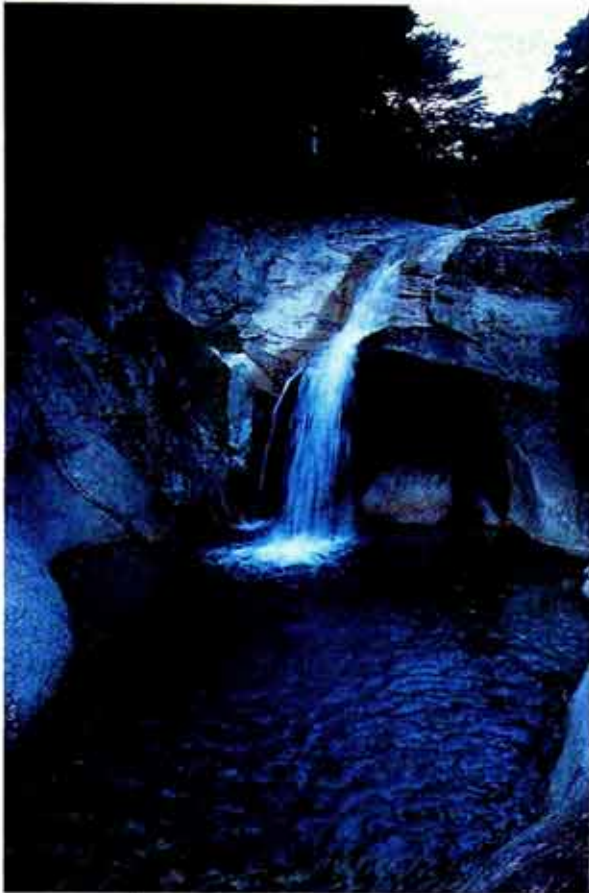


하늘다람쥐·산양 뛰노는 '생태의 보고'



주전골의 대표적 명승인 용소폭포

80년대 중반부터 시작된 백두대간 종주는 산을 좋아하는 사람이라면 반드시 해야 할 일로 인식되었다. 백두대간 종주 여부를 산행 관록의 척도로 삼기도 했고, 우리 국토에 대한 최고의 애정 표현으로 여기기도 했다. 하지만 앞으로는 백두대간 종주를 했다는 사실을 숨겨야 할지도 모르겠다. 이미 백두대간 마루금에는 '고속도로'가 뚫렸다는 말도 자조로 들린다. 산 좋아하는 놈이 산 망친다'는 말이 요즘처럼 실감나는 때도 없다.

최근 이루어지고 있는 한빛은행 직원들의 대규모 백두대간 종주는 무분별한 산행의 가장 불행사나운 사례로 기억될 것 같다. 8200여명의 직원들이 200~300명 단위로 무리지어 이어달리기식 종주를 하고 있는 중인데, 산이 느낄 스트레스와 훼손이 적지 않을 것임은 상식 수준에서도 짐작하기 어렵지 않다. 이것 말고도 못한 산행 문화는 이미 보편화된 것 같다. 쓰레기 퇴거까지 않자, 기복 경계 하듯이 좌우 둘러볼 겨를도 없이 후딱 뛰어나다. 봉우리에만 올라서면 고향처럼 등, 무슨 일이든 경장적으로, 아니면 하기 싫은 숙제하듯 하는 산행이 과연 누구를 위한 것일



점봉산 오름길. 수많은 들꽃과 우거진 수풀이 원시적 생명의 기운을 내뿜는다.



망대암산에서 설악산 쪽으로 바라본 백두대간 등성마루. 화면 오른쪽 가운데의 임종 너머가 한계령이고 하늘금을 이루는 산마루가 설악산의 서북 주봉이다.

백두대간 속으로 <39>

주전골 성곡사터 삼층탑만 덩그러니

까? 불편한 얘기는 이름에서 짐기로 하고 점봉산을 오른다.

강원도 인제군 인제읍 귀둔리와 기린면 진동리 및 양양군 서면 오거리 사이에 위치한 점봉산(1424.2m)은 설악산 군봉의 하나로 설악산 국립공원에 포함되며 남설악으로도 불린다.

점봉산은 우선 때묻지 않은 원시의 숲이 뿜어내는 기운이 단연 한국 최고라 해도 그리 흠잡지 않을 산이다. 설악산의 유명세에 가려진 덕분에 사람의 발길이 비교적 적은 점도 훼손을 줄여 주었다. 동두령한 육산과 우람한 바위의 조화도 점봉산의 자랑이다. 생물종 다양성에 있어서도 점봉산은 국내 최고다. 한계령플, 모데미풀, 등대시호 등 30여종의 법정보호식물과 하늘다람쥐, 산양, 수달 등 31종의 천연기념물이 자라고 있다.

점봉산 정상에서 바라본 설악산의 자태도 아주 빼어나다. 귀뚜라기봉을 비롯한 서북 주봉에서 대청을 향해 오르는 장쾌한 능선은 보기만 해도 가슴을 세늘하게 한다. 설악산의 입장에서 그야말로 지음(知音) 셈이다.

단목령에서 점봉산 정상까지는 반나절 거리다. 단목령을 지나 습지로 이루어진 구름을 지나 포수미터 못 미쳐서 남서쪽으로 방향을 틀어 정상을 향해 키를 올린다. 우측으로 난 길을 따르면 오색온천에 닿을 수 있다. 해발

600미터에 위치한 오색온천은 우리나라의 온천 중 가장 높은 곳에 자리잡고 있다. 유황 성분이 많아 피부병이나 신경통, 부인병 등에 좋다고 한다.

점봉산 정상은 간신히 좋고 지나야 하는 수풀 우거진 능선과 달리 제법 넓은 평지와 바위로 이루어져 있다.

점봉산에서 한계령으로 내려서는 대간은 망대암산(1236m)이라는 제법 우뚝한 산 하나를 일으켜 세운다. 그 옛날 도둑들이 망을 보던 곳이라 하여 비릇된 이름답게 조망이 뛰어나다.

망대암산을 지나면서부터 등산로는 선명하나 만물상 바위능선은 줄을 의지하지 않을 수 없을 정도로 까다롭다. 하지만 기본종은 건강

아름다운 한계령 멀리 동해까지 조망

을 만들어내는 바윗길은 평범한 산에서는 맛볼 수 없는 색다른 즐거움을 안긴다.

바윗길을 지나기 전에 북동쪽으로 빠지면 주전골을 둘러볼 수 있다. 옛날 물레 위조 업전을 만들던 사람이 이곳을 지나는 관찰사에게 들켰다는 전설을 간직한 골짜기로, 기묘묘한 바위가 병풍처럼 둘러쳐졌고 가을이면 단풍이 아름답기로 이름난 곳이다. 오색악수

에서 한시간 이내로 주전골의 상징인 용소폭포에 닿을 수 있을 정도로 쉽게 사람들의 발길을 허락한다. 주전골에는 또 신라의 고찰인 성곡사터가 있는데, 지금은 보물 497호로 지정된 삼층석탑만이 남아 어렵듯이 옛날을 증언하고 있다.

바위 능선을 지나 두어 시간 남짓이면 한계령에 닿는다. 우리 나라 고갯길 중 가장 아름다운 곳으로 첫손 꼽히기도 하는 고개다. 가을이면 단풍으로 냇을 빼앗고 여름이면 잦은 안개로 신비감을 더해 주는 고갯길. 혹 시계가 좋은 행운을 만날 수 있다면 멀리 동해 바다에 풍덩 빠질 수도 있다.

글=윤제학 기자
사진=손재식(사진작가)

경 상

사찰의 강원에서 쓰는 전통적인 경상을 현실에 맞게 사용할 수 있도록 제작 하였습니다

- 특징 : 이음새 부분은 못을 사용하지 않고 전통적인 방법으로 홈을 파서 제작하였습니다.
- 재질 : 알마시카
- 규격 : 가로 74cm x 세로 33cm x 높이 30.5cm
- 가격 : 130,000원

프리폼(FREE FOAM)

37°氣 베개

※ 프리폼(FREE FOAM)이란? 미항공우주국 NASA에서 개발한 저탄성/고밀도 충격 흡수 소재입니다.

- 특징 : 인체공학적인 설계로 압력을 분산시켜 편안한 수면을 도와드립니다
- 이룬분께 권해드립니다
자은 두통·불면증·어깨결림·심한 코골이에 시달리시는 분
- 재질 : 프리폼(FREE FOAM) + 커버(면 100%)
- 색상 : 아이보리, 하늘색 ● 가격 : 69,000원

발명특허 제0188231호 Live soul기(氣) 암석

37°氣 방석세트

- 특징 : 지압효과·보온/방습효과·항균작용 미끄럼 방지·개성있는 디자인
- 효과 : 생리통, 냉대하, 두통, 냉습, 신장기능저하, 신진대사불량에 좋습니다.
- 이룬분께 권해드립니다
허루종일 의자에 앉아 생활하는 회사원, 운전자, 학생들에게 좋습니다.
- 재질 : 발포제(폴리우레탄) ● 색상 : 연보라, 베이지
- 구성 : 방석 + 등받이(의자용) ● 가격 : 40,000원

LIFE SOUL은 40' 이상의 전열을 가하여야만 원적외선이 방사되던 기존의 제품과는 달리 체온만으로도 원적외선이 방사됩니다.

www.mahamall.co.kr 주문 및 문의전화 : 02)732-1522